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pnews.org
 영어판 gpnewsen.org
 일어판 gpnewsjp.org
 중어판 gpnewsch.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4. 3. 3 ~ 2024. 3. 23 제296호

캘리포니아 한인 교계, 아동 보호법 상정 위해 서명 운동

미주 캘리포니아 한인 교계가 오는 11월 선거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지키는 법안을 주민발의안으로 상정하기 위해 대대적 서명 운동에 나섰다. 이는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고 공립학교 내 성중립 화장실 허용 등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법들이 다수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미주중앙일보에 따르면, 남가주서명운동본부는 '2024년 캘리포니아 아동 보호법(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을 상정하기 위해 기독교세계관 전문단체 TVNEXT를 비롯, 주님의영광교회, 은혜한인교회,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남가주교회협의회 등 교회 및 교계 단

체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또한 미국소아과학회, 어린이 보호 지원 가족 위원회를 비롯한 빌 에사일리 가주 하원 의원(공화당), 라일리게인즈(수영선수), 클로이 콜(탈성 전환자) 등도 이번 서명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26년 공립학교 내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성중립 화장실 설치,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성 정체성 등의 상담 제고 가능, 공립학교 교직원에게 LGBT 교육 의무화하고 LGBT 정체성 등을 인정하지 않는 학부모에 대한 프로필 작성 허용, LGBT 등의 내용이 수록된 교과서 등을 금지하는 교육구를 제재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주민발의안이 상정, 통과될 경우 다섯 가지가 바뀐다. ▶공립학교, 대학교 등에서 남녀 간 성별에 따른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사용 의무화 ▶남학생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다 해도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 ▶학교가 자녀에게 성전환 또는 성별, 이름 변경 등을 권유할 때 반드시 학부모에게 먼저 통보 ▶학부모 동의 없이 학교 측 또는 의료기관이 자녀에게 성전환 권유, 정신과 상담 소개, 성전환 시술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 ▶미성년자가 성별을 바꾸는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에 캘리포니아주 지역 납세자들의 세금 사용 금지 등이다.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해서는 총 55만 개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에 서명본부는 무효 서명을 감안, 70만 개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중 한인교계는 10만 개의 서명을 모을 계획이다. [GPNEWS]



▲ 미주 한인 성도들. 출처: 유튜브 채널 은혜한인교회 GKCTV 캡처



사람 풍경

장세희 선교사 (모로튬)

“성경 한 권을 보내는 것이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하는 거예요”

경기도 군포에 있는 모로튬 카페를 1년 만에 다시 찾았다. 지난해 1월, 기니비사우에 성경을 전달하겠다는 장재호 선교사 인터뷰가 본지에 소개된 이

후, 1600권의 성경이 기니비사우에 전달됐다. 장재호 선교사는 그 사이 장세희 선교사와 결혼식을 올렸다. 이 부부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과 알려

고 싶은 기도제목들이 많아 취재진을 초대했다. 이번엔 장세희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4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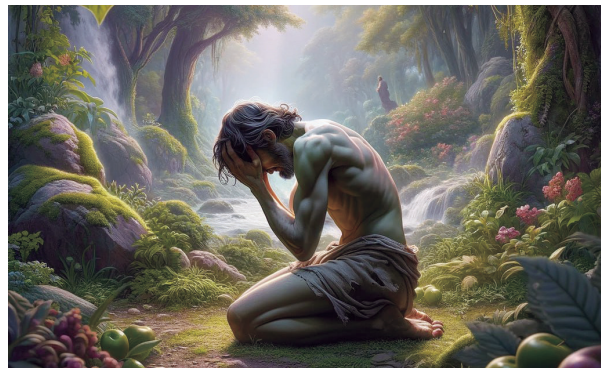
마음의 눈을 밝히사 (79)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탄, 곧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고 속였다. 그것은 마귀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던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지으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창세기 2:17, AEB)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자, 그 순간 모든 것이 변

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들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만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지으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창세기 2:17, AEB)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자, 그 순간 모든 것이 변

던진 공에 옆집 창문이 깨지고, 그 집주인 아저씨가 화가 나 달려오고... 이런 일을 경험했던 사람은 그들의 두려움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실수로 옆집 아저씨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다. 세상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창세기 3:8, KSV)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그들의 주님,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기가



일러스트=시제작. DALL-E.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9, KLB)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어있는지 모르는 걸까? 그들이 왜 벌거벗었다고 느끼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걸까? 금지하신 열매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꼭 이 죄인들에게 물어보셔야 하나? 이 일의 진실을 말하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

그렇지만 지금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들의 범죄가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중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했다. 이처럼 사람이 사물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질문하심으로 도와주시는 장면이 성경에는 종종 나타난다. [GPNEWS] 엠마오 길에서 만난 사람 (존 크로스. 엔티엠 출판부. 2006)에서 발췌

복음기도신문?

전도현장에 사용되며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열독하는

하나님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신문입니다

구독신청 및 문의

010-6326-4641

포토뉴스

민주공고, 반군 등장으로 끊임없는 내전 중



▲ 콩고민주공화국 미심부에교회의 찬양대원들. 제공: WMM

콩고민주공화국 (이하 민주공고) 미심부에교회 찬양대원들이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을 맞춰보고 있다. 평안하고 고요한 예배당에 울려 퍼지는 찬양대의 노랫소리가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늘 보좌에 도착할 때 즈음, 천군 천사들의 합창이 더해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랫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지는 않을까? 행복한 상상을 하던 것도 잠시, 지금 민주공고의 상황은 혼란투성이다. 동부 지역에서 반군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수천 명의 주민들이 피란길에 올랐다. 최근 투치족 반군 M23이 동부 사케 마을을 포위했다. 민주공고는 벨기에의 식민통치 시절의 고통과 아픔을 지나 1960년에 독립을 얻었지만 풍부한 자원의 이권과 권력 다툼으로 후투족과 투치족 간에 일어난 분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무려 64년의 분쟁. 심화된 내전으로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개입과 중재로 휴전 합의가 이뤄졌으나 폭력사태가 끊이지 않

아 이마저도 유명무실해졌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흑이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 공평과 정의로 통치되고, 안식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뤄진 하나님 나라를 민주공고에 임하게 하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 42:5) [GPNEWS]

북부 무슬림에 붙잡혀 노예로 전락한 남수단 기독교인들... 지난해 1500명 풀려나

지난해 남수단에서 노예 상태에 있는 기독교인 1500명이 자유의 신분으로 풀려나도록 국제기독교연대(CSI)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고 페이스라이터가 최근 소개했다. 페이스라이터에 따르면, CSI는 지난해뿐 아니라 지난 30년간 노예 상태의 기독교인 10만여 명이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지역에서 사역해왔다. CSI의 조엘 벨드캠프는 “남수단 기독교인과 토착종교 신도들이 지난 수십년간 이들을 노예로 삼으려는 무리들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러한 무슬림들의 공격 때문에 수단의 기독교인들은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말했다. 수단에서 벌어진 강제 노예 문제는 1980년대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수단은 단일 국가였다. 그러나 아랍인으로 무슬림이 지배하는 북부와 흑인으로 기독교가 지배하는 남부의 내전으로 수단은 남북으로 분단됐다. 이때 북부 무슬림 정부는 남부에 대한 전쟁을 펼치면서 전쟁 무기로 ‘노

예제’를 채택했다. 이 같은 이유로 2005년경 분쟁이 끝날 때까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체포되는 등 고통스러운 삶을 견뎌야 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2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포로로 붙잡혀 노예로 살며 고통스럽고 고된 삶을 살고 있다. 벨드캠프는 무슬림들이 이들 포로들에게 폭력과 성적 학대를 가해 이들의 정신세계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구사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도 그들은 포로 시절의 폭력과 성적 학대, 노예들로서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했다. 벨드캠프에 따르면, 소년들은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무슬림으로 살도록 강요받고 있다. 또 이들에 대한 처우도 잔혹했다. 노예 생활을 하던 한 소년은 주인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고 도망을 하다가 다시 붙잡힌 이후 손가락을 절단당하기도 했다. CSI는 이러한 어렵고 치명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지하 네트워크를 통해 노예들의 자유를 돕고 있다. CSI의 이러한 사역은 염소 상인들이 북수단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모아 집으로 데려오는 동정심 많은 무슬림과 접촉하면서 시작했다. 노예들은 비밀 경찰과 군대를 피해 밤에 국경을 향해 걸어서 이동한다. 이때 가족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을 노예들의 자유를 위해 제공하기도 한다. 벨드캠프는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이러한 노예들의 처우에 공포를 느끼는 무슬림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CSI는 무슬림 집단에게 가족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을 제공하는 대신, 남수단 국경을 넘어 오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와 최소한의 생존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G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독일, 낙태 시설 주변서 기도 벌금 법안 추진

독일 정부가 낙태 시설 주변에 검열 구역을 설정해 생명을 살리는 기도와 도움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최대 5000유로(72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기독교인들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최근 크리스천포스트가 전했다. 해당 법안은 시설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혼란’ 또는 ‘방해’로 간주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는 법안이라는 게 설명이다.

미국과 영국에 이어 독일에서도 낙태 시설 주변에서의 기도를 막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기도는 막히지 않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어둠의 일을 떨치고, 독일의 교회가 생명을 지키는 기도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美 조지아주 침례교, 코로나19 이후 침례 92% 증가

미국 조지아주 침례교회는 지난해 1만 9738명이 침례(세례)를 받았으며, 이는 2022년에 비해 4600명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크리스천인덱스가 전했다. 지난 1년간 세례는 30% 증가했고, 2020년 이후 92% 이상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조지아 전역에서는 복음 전도 활동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백슬리 마을에서 4일간 진행된 집회에 약 1600명의 사람들이 이 복음에 응답했다.

애즈베리 부흥 이후, 식지 않고 이어지는 미국의 부흥의 소식을 듣습니다. 각 영혼들이 예수 교회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셔서 낙태, 마약, 총기 사고, 동성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는 영적 각성을 일으켜 주옵소서.

韓 청년 20%, “부모 지원 없이 성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년의 23%만이 ‘우리 사회는 부모의 지원이 없어도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보다 두 배 많은 42.7%의 청년들은 ‘부모 지원 없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18일 발표한 ‘청년의 긍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의 성공에는 가정환경보다 본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 청년은 52.4%였다. 이에 동의하지 않은 비율은 15.0%에 그쳤다.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로 부모의 지원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짓에서 청년들을 구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청년의 포부와 열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이 아닌 진정한 가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여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으로 청년들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G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계

2024년 3월 4일 ~ 2024년 3월 23일

매주 월~금(09~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 화(10~12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 화(13~16시) ▶서울 종로 / 초대교회, 수(10~12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 목(20~22시)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 금(10~17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 금(15~20시), 주일(15~17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3월 4일 ~ 3월 9일 3.4(0~24시) ▶강원 고성 / 가마골교회, 3.4(08~20시) ▶울산 중구 / 태화교회, 3.4~9(10~20시) ▶서울 광진 / 빛과소금선교회, 3.4(11시)~6(18시) ▶인천 연서 / 열방드림교회, 3.6(0~24시) ▶경기 수원 / 진흥교회, 3.6~8(08~17시) ▶경기 의정부 / GNC선교회, 3.7(0~24시)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 3.8(19시)~9(08시) ▶서울 영등포 / 여의도소망교회, 그 외 3교회 진행중.

3월 11일 ~ 3월 16일 3.14~15(0~24시) ▶강원 속초 / 동명교회, 3.11~15(18~20시) ▶전남 신안 / 암태중부교회, 그 외 3교회 진행중.

3월 18일 ~ 3월 23일 ▶경남 통영 / 두미교회, 3.18(11시)~20(18시) ▶인천 연서 / 열방드림교회, 3.18(14시)~19(14시) ▶인천 서구 / 사랑교회, 3.18~22(18~20시) ▶전남 신안 / 암태중부교회, 3.20(0~24시) ▶부산 해운대 / 수영로교회, 3.20(21시)~23(18시)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 3.22(19시)~23(08시) ▶서울 영등포 / 여의도소망교회, 3.23(09~18시) ▶경남 진주 / 예수로교회, 그 외 3교회 진행중.

기도 참여 문의 | 010-9440-4365(기도24365본부 느헤미야 담당자)



아르메니아 기독교 난민 12만 명... 도움의 손길 기다려

지난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분쟁으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있는 아르메니아 주민 12만여 명이 난민 신세로 전락했다. 2023년 9월 20일 분리독립을 요구하던 아르메니아계 자치세력이 아제르바이잔에 항복한 이후, 아르메니아 주민들이 2500년 동안 살던 영토 나고르노카라바흐를 떠나야 했다. 사방이 아제르바이잔에 둘러 쌓여 있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지정학적 한계로 인해 자주 공격을 받던 이곳에 대한 아제르바이잔의 노골적인 군사공격으로 이제는 완전히 이곳을 탈출해야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제기독교연대(Christian Solidarity International, CSI)는 미국이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인종청소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CSI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아제르바이잔과 터키의 공격적인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실존적 위협을 받고 있는 아르메니아 기독교인들을 위해 일어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아르메니아는 1992년 한국과 수교했으나, 우리와 눈에 띄는 교류가 없어 이 같은 아르메니아 사태는 그리 주목을 받지 못했다. 아르메니아는 한국의 자동차, 기호식품, 의류 등을 수입하고, 한국은 아르메니아의 아연광, 비금속광물 등을 수입하는 정도로 대중에게 알려질 기회도 별로 없었다.

그러나 아르메니아는 십자가 사건 이후, AD 313년의 로마보다 이른게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한 나라다. 국가 차원에서 가장 빠르게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나라라는 점에서 기독교인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이 땅을 주목하고 있다. 국제 선교단체 바나바에이드는 이들 아르메니아 난민들이 거주할 집과 생존할 생계 수단을 마련하며 긴급 구호를 지원하고 있으나, 국제적인 도움의 손길은 미미하다고 밝히고 있다.

아르메니아의 곤경에 무관심한 서방국가

아르메니아 민족은 수천 년간 코카서스 지역에 살며 여러 세기에 걸친 대량학살과 추방에서 살아남아 지역 내 몇 안 되는 기독교 국가 중 하나로 남았다. 아르메니아인들은 현재 일어나는 '평화 노력'이 자신들의 국가를 지도에서 지우려는 어둡고 오래된 의도를 은폐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의 존재 자체가 공격받고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 별로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 서구권이 아르메니아의 곤경에 무관심해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지역의 이상한 동맹국들과 관련이 있다. 아르메니아는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이 가하는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와 이란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 특이한 두 후원국 모두는 현재 다른 곳에서의 분쟁, 즉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때문에, 이란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 하마스를 지원하면서 주의를 분산되고 있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아제르바이잔이 지역 내 주요 석유 수출국이며 러시아 석유에 대한 제재로 인해 아제르바이잔이 가진 자원 가치가 더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은 석유 40%를 아제르바이잔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양국은 이란에 맞서 오랫동안 협력과 동맹을 유지해왔다. 아르메니아인들은 최근 공격에서 아제르바이잔이 이스라엘산 무기를 사용했음을 알고 경악했다.

지난 9월 아제르바이잔군이 나고르노카라바흐에 진입해 아르메니아 민족 12만 명이 아르메니아로 도망친 직후 앤터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은 아제르바이잔이 가까운 미래에 아르메니아 자체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침공했어도 아제르바이잔은 별 문제가 없었기에 알리에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아르메니아 영토를 차지하고 터키와 힘을 합쳐 '범터키' 연방을 만들겠다는 그의 오랜 목표에 대한 용기를 얻은 듯하다.

아르메니아인들이 아르차흐(Artsakh)라 부르는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침공하기 훨씬 전부터 알리에프 대통령은 아르메니아를 '서부 아제르바이잔'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터키 대통령과 함께 일함 알리에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아르메니아 남부를 통과하는 육상교통, 즉 그가 말한 '잔게주르 회랑(Zangazur Corridor)' 건설을 점점 더 고집하게 됐다. 이를 통해 에르도안과 알리에프는 자국의 영토를 그 지역과 연결하기를 희망하고 있

다. 그러나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 그들 입장에서는 아르메니아가 여전히 길을 막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제르바이잔과 터키가 자신들의 공통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오구즈 투르크인(Oghuz Turks)은 8세기에 중앙아시아에서 이 지역에 도착했다. 1918년 이전에는 현재의 아제르바이잔이 이란의 한 지역이었다. 러시아 혁명 이후 아르메니아 공화국과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은 모두 소련에 흡수됐으며 현재 코카서스 지역에서 벌어지는 다수의 분쟁은 자신이 정복한 그룹들을 분할 및 추방했던 이오시프 스탈린의 정책에서 기인하고 있다.

“아르메니아를 통과하는 잔게주르 회랑은 터키의 오랜 국가 목표였다”

스탈린은 고대 아시아인들의 행보를 모방해 민족 집단들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반란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강제 이주를 시행했다. 남코카서스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은 당시 타타르족(Tatars)이라 불리던 투르크족 지배 지역에 살게 됐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아제르바이잔인의 조상인 투르크계 유산을 갖던 사람들은 아르메니아인들이 수천 년간 통치하던 지역들로 옮겨졌다. 이는 양측 모두 조상의 땅에 대해 역사적 영유권이 있음을 의미한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아제르바이잔인들과 아르메니아인들은 비교적 평화롭게 함께 살았다. 그러나 소련이 무너지고 찾아온 새로운 자유는 구소련권 전역에 걸쳐 국가적 정체성에 다시 불을 붙였다. 기원전 189년부터 아르메니아 왕국의 한 지방이던 아르차흐(나고르노카라바흐)에 살던 아르메니아인들은 자신들의 자치 지역을 만들고자 싸웠다. 그들은 1991년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으며 이는 1992년 전쟁으로 이어졌다. 아르메니아의 지원으로 1994년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다.

2020년 새로운 전쟁이 발발했다. 여기서 아제르바이잔이 승리해 나



▲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탈출해 방공호에 머물고 있는 아르메니아 난민들. 출처: JAMnews 캡처

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싼 땅을 되찾았다. 그러자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와 나고르노카라바흐 사이의 라친 회랑(Lachin Corridor)을 계속 열어 두고자 2000명의 병사를 평화유지군으로 배치했다. 하지만 2022년 1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주목하면서 아제르바이잔이 기회를 잡았다.

그 이전에는 아르메니아에서 구불구불한 17km짜리 산악 도로인 라친 회랑을 따라 나고르노카라바흐 국경까지 가는데 25분이 소요됐다. 2022년 12월 12일에 아제르바이잔은 라친 도로에 갑자기 검문소를 설치해 이 지역에 식량과 보급품이 유입되는 흐름을 막았고 이 봉쇄는 9달 동안 계속됐다. 다가오는 굶주림과 전 지구적 무관심으로 인해 이곳 주민은 사기가 저하됐다. 2023년 9월 19일 아제르바이잔군이 아르차흐공화국 수도 스테파나케르트에 진입하자 그곳 정부는 재빨리 항복했으며 거의 모든 인구가 피난을 떠났다. 화합과 평화를 약속한 것과는 달리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카라바흐 고위 지도자 8명을 체포하고 이들을 테러 혐의로 구금했다.

아제르바이잔은 탈출한 땅에서 아르메니아의 유산을 지우는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아제르바이잔은 지난해 9월 군사 공격이 있는 지 겨우 2주 만에 스테파나케르트(현재 칸켈디로 불림) 지도를 재발간했는데, 여기서 거리 이름을 아제르바이잔어로 바꿔놓았다. 이제 한 거리는 터키군 장교이자 1915년 아르메니아 대학살 주요 선동자인 엔베르 파샤(Enver Pasha)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다. 알리에프가 잔류 희망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국제 사회에 약속했음에도 이 땅을 벗어난 아르메니아 주민들은 이러한 세세한 일들을 잊지 않았다.

코카서스 헤리티지 워치(Caucasus Heritage Watch) 9월 보고에 따르면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역사적 교회들과 수도원들이 현

재 위협받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2020년 휴전 이후 자국 통제하에 들어온 땅에서 이와 유사한 기념물들을 파괴했다. 모흐레네스(Mokhrenes) 마을에 있는 성 사르기스(St. Sargis) 교회는 아제르바이잔이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라는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위반해 2022년 3~7월 사이에 파괴됐다. 코카서스 헤리티지 워치는 위성을 이미지를 분석해 시간 경과에 따른 풍경 변화를 모니터링한다. 연구원들은 다른 지역에서 교회들이 완전히 파괴되고 모스크로 대체됐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소련 붕괴 이후로 아제르바이잔이 통치해온 나흐치반 지역에서는 1997~2011년 사이에 역사적인 아르메니아 수도원, 교회 및 공동묘지 110개 가운데 2곳을 제외하고 모두가 파괴됐다.



일러스트=AI 제작. Midjourney.

아르메니아인들과 국제 사회는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제이콥 퍼슬리(Jacob Pursley)는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온 난민을 돕는 예레반(Yerevan)의 교회인 아르메니아 국제성서교회(International Bible Church of Armenia)의 미국인 목사다. 그는 아제르바이잔과 터키의 방식을 하마스 같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방식에 비유하며 그들이 고고학과 역사를 무기화한다면 “그들은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에게 그 모든 땅이 자신들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GPN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 지도에서 붉은색을 둘러싼 하늘색 안의 구역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이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오직! 절대! 전부의 복음! (14)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곧 영광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골 1:26-28)

교회의 목표이며 선교의 목적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이다. 각 사람을 폭풍과 태풍에 휘몰아치는

이 혼잡한 세상 안에서 여기서 저기 흉내 내고 기웃거리고 떠밀리다가 태풍에 밀려 역사의 저편으로 던져지는 자가 아니라 이 태풍과 폭풍의 한복판에서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절대 진리를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가 절대와 전부가 된 자로 세우는 일이다. 복음이 전부가 되고 살아 계신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 나의 사상과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 나의 인격 전부가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린 사람, 오직 그리스도만 남은 사람으로서의 것이다.

바울은 그가 경험했던 모든 인생의 결론을 십자가에서 결론을 짓고 빌립보서 1장 20~21절에서 “내가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간

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내 안에 오시게 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아멘, 바울의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나머지를 말할 수가 없다.

거룩한 부르심과 온전한 주님의 축복, 완전한 복음 안에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요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자가 되게 하신 것이다. 폭풍의 소용돌이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갈 주님의 몸 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이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절대, 전부의

믿음으로 바로 이 복음에 생명 건 순종의 사람이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역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주님을 절대로 붙잡지 못하고 그를 전부로 여기지 못했던 자들. 화려한 출발을 비극적 종말로 끝을 냈던 사람들 사울, 삼손, 가롯 유다의 예를 잊지 말자. 대신 초라한 출발이었으나 주님이 전부가 되고 오직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 아브라함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셨다. 그 주님이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 계신다.

절대라는 말을 가장 싫어하는 이 세대 한복판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예수



일러스트=고은혜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부가 된 믿음으로 이제는 자아의 저주받은 운명을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 자신을 기꺼이 전부로 주님 앞에 드리며 따르기로 결단하자.

중간 지대는 있을 수 없다. 오직과 절대와 전부의 대상이 나인지 아니면 주님인지 분명하게 결정해야 한다. 주님이 전부가 되지 못하게 하는 자아의 여지를 끊어버

리고 오직 주님을 말 그대로 전부로 오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고백하자. “나는 진리 편에 서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에게만 맡기겠습니다. 내 미래도 나의 꿈도 나의 젊음도 나의 가정도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2018년 8월) <끝> [GPNEWS] 김용의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Jakin & Boaz

- 1 투어 ✈

 - 단기선교, 아웃리치 패키지
현장 선교사 연결(아프리카, 동아시아 등) & 항공권
 - 성경문화탐방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선교사 가이드
 - 신혼여행
 - 복음기도동맹군 신혼 여행지 숙소 & 가이드 연결
 - 항공권 발권 대행
- 2 도서 📖

 - 김용의 선교사 저서,
순회선교단 선교관학교 & 중보기도학교 필독서
 - 야긴 추천도서 50% 할인
- 3 전도용품 ☕

 - 메시지 머그컵·텀블러
 - 복음 마스크

문의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기도24:305 복음과기도미디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eBook

복음의 영광
복음을
영와 함께
아다

6종으로 구성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는
복음을 주제로 하여, 6가지의 영역을
기도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2023 긴급기도정보 *별도구매

최근 열방에서 일어난 긴급한 기도제목을 담은
2023 긴급기도정보 6종(5권) eBook은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eBook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스24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책임교사를 위한
교육백서

GPM
도서

▶ **특기** 제1회(2023) 1권

값 8,000원

다음세대 선교사 양성을 위해 **헤브론원형학교**는 교육의 주체를 교사, 책임교사로 명명된 부모, 신앙의 터전인 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땅의 다음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용감하게 자신을 드러 순종하는 순종의 전문가, 용감한 정예병으로 자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의 역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사, 로그미션 대표)

“책임교사로, 교육선교사로 각각 헌신하여, 피 묻은 생명의 복음을 마을마다 동네마다, 종족마다, 나라마다 증거하고, 거짓과 탐욕, 어둠과 죽음의 영에 사로잡힌 자녀들이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길 기도하며 주님의 보혈로 쓴(주홍글씨), <책임교사를 위한 교육백서>의 일독을 강추합니다.”
장감덕 목사(대전 카이스트교회)

복음과기도미디어

구입문의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크리스천의 세상 바로 보기

의대 증원 난제, 그리고 ‘재난을 주는 위로자’

읍기를 묵상 중이다. 16장에는 절묘한 표현이 등장한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읍이 그의 친구들의 조언을 듣던 중 말한다. “그대들은 내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와 같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조합이다. 재난과 위로자. 이 두 가지 개념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만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오랜 세월 전의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던 시절의 기억이다. 오랜 절친이 인생의 중대한 기로 앞에 섰다. 친구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했다. 필자는 친구의 일시적 외도를 책망하고 가정으로 돌아서게 해야 한다는 열심에 사로잡혀 친구를 호되게 나무랐다. 친구도 할 말이 있었다. 아내가 먼저 동네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것 같다는 얘기였다. 그렇다고 가정을 깰 수 없다며, 친구를 거세게 물어볼었다. 그날 만남 이후 그 친구는 내게 연락을 끊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흘렀다.

읍기의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사람의 읍에 대한 비난과 책망을 볼 때마다, 나는 그때 철없는 시절의 나를 떠올린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과 친구가 어긋난 길을 간다는 지적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다. 적어도 당시 나의 지적은 오늘 읍이 느꼈던 바로 그 말로 들렸을 것이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바로 나왔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실수를 안 하고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그는 완전한 자다. 그런데 그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희박할 것이다. 그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다.

최근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은 열차 선로처럼 팽팽한 대립 상태에 있다. 전문 식견이 없는 문외한으로서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위해 나름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처음에는 의료인들의 밝그릇 투정으로만 봤다. 그러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며, 생각은 조금씩 바뀌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의료계 내부의 실상’이라는 부제를 붙인 ‘한외과 중도 포기 의사의 리얼 스토리’라는 글은 충격이었다. 의사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라는 이 기고문의 주인공은 외과 1년차 때 사직하고 나온 외과 중도 포기 의사라고 했다. 한때 ‘바이탈 뿡’(생명을 살리면서 느끼는 희열)으로 열심을 냈던 인턴, 레지던트를 거쳤다. 그러다 외과 선배이지만 외과가 아닌 개원을 했던 선배의 의원을 인수해 오늘에 왔다고 했다. 외과 전문의로서 외과를 개원하기 어려운 이유는 자기 전공을 살려서 먹고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택하는 의사들의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의사들을 외과 전문의로서 버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법부가 의사들에게 형사처벌을 남발하면서부터라고 했다. 경제적인 이유(개원에 드는 엄청난 재정 등)로 전공을 살리지 못한 것은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자부심이었던 전공이 사회에서 범죄자가 되는 길이란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의사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이었다.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지금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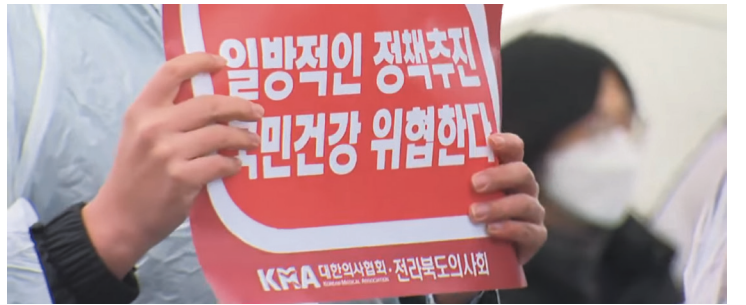
의 붕괴를 가져왔다고 했다. 그리고 의료수가의 문제도 제기했다. 한 종합일간신문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주장을 제시하며 “정부가 의사 압박만 말고, 필수 수가를 5배 인상하고 민형사 책임을 완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바로 이 같은 의사들의 외침과 동일한 주장이었다.

아쉬운 것은 ‘왜 이런 속 깊은 이야기들을 그동안 제대로 나누지 못했을까?’였다. 우리 사회는 그만큼 다양한 현안 문제에 대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나눌 수 있는 기반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게 어디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 아담과 하와의 창조 이후 지금까지 인류사회가 존재했던 모든 곳에서 발생한 일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파국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윈윈(win-win)을 원한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세상에서 윈윈을 목적으로 할 때 좀처럼 그것을 만날 수 없다. 윈윈은 자연스럽게 마침내 나타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드러나지 않는 오묘한 비밀을 갖고 있다. 내가 죽어 너가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성만찬의 선택만이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읍기 16장 21절을 통해 읍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한 줄로 요약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기를 원하노니”

읍은 자신에게 허락된 고난의 이유를 속 시원하게 말해주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줄 중재자를 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팻말 시위. 출처: 유튜브 채널 YTN 캡처

했다. 이웃과 나 사이를 누군가가 중재해주듯이 하나님과 단절된 나 사이의 관계를 풀어줄 중재자를 요청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답을 알고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인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면 된다.

꼭 막힌 것 같은 의대 증원 문제의 해법은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일에서 시작돼야 한다. 의료계가 정말로 필요한 것. 의사들이 느껴왔던 절박한 생존의 문제들을 정직하게 드러내야 해법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 또한 행정관료로서

의사의 심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그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심판자로서 부로크라트나 테크노크라트의 입장을 취하며, 우리가 파악하고 제시한 처방을 따르라고만 한다면 해법을 찾을 수 없다. 그때 정부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 밖에 될 수 없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기를 기대하며 기도한다. [GN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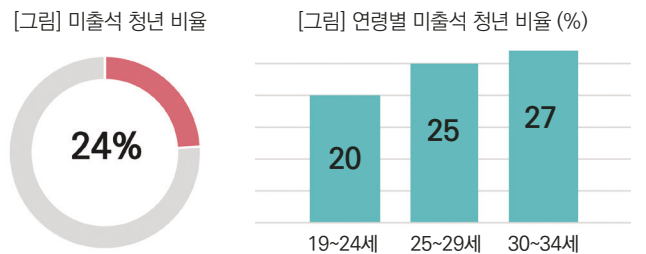
C.K.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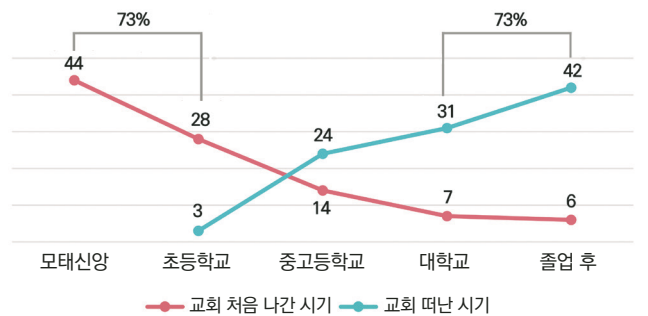
데이터로 보는 교회

韓 미출석 성도, 10년 새 2배

2012년 10.5%(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조사 결과)였던 교회 미출석 성도가 2023년 기준, 26.6%로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최근 밝혔다. 개신교인 19~34세에 해당하는 개신교인 중 미출석 성도는 24%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미출석 성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출석 청년이 ‘교회에 처음 나간 시기’는 ‘모태신앙’인 경우가 44%로 가장 많았다. 반면 교회를 떠나는 시기는 ‘대학 졸업 후’가 42%로 가장 높고, ‘대학교’가 31%로 대학교 이후 이탈한 비율이 총 73%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후 청년들의 교회 이탈 러시(rush)가 본격적으로 발생했다.



복음을 몰라 우리 방황하는 청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온전히 거듭나서 주의 말씀만을 붙드는 믿음의 세대로 일으켜주시기를 기도하자. [GN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북한 부흥을 위하여

北, 구급차 없어 병원 가는 길에 환자들 사망

한반도에서 지금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개인의 어떤 자유도 없는 북한 주민과 그 땅을 떠난 탈북민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의 인권회복과 진정한 부흥을 소망하며 기도하자. <편집자>

보건 여건이 열악한 북한에서 응급 환자들이 구급차가 거의 없어 병원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아 가는 도중 숨을 거두는 경우가 많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최근 전했다. 함경북도 경성군 생기령노동자구에서 한 주민은 급성 심장 발작으로 갑자기 쓰러져 군 병원으로 가던 도중 숨을 거뒀다. 매체 소식통은 가족들이 여

기저기 자동차를 구하느라 40분 넘게 시간이 지체됐고 부랴부랴 환자를 싣고 군 병원에 갔으나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고, “구급차가 있었다면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군 병원에 구급차가 없어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다른 한 소식통도 간부나 돈주들은 급한 환자가 생기면 승용차를 불러 쉽게 병원에 가지만 일반 주민들은 갈 차를 얻는 게 쉽지 않아 보통 환자를 업고 병원으로 간다면서 “진료소가 집 가까이 있지만 의료 수준이 군 병원에 미치지 못해 몸이 아플 때 군 병원으로 바로 가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읍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환자가 생겨도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실제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숨을 거두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GN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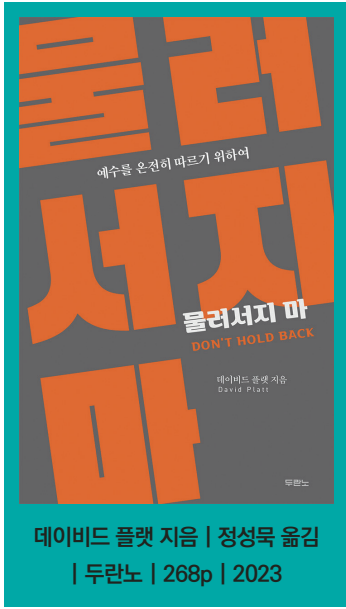


출처: 모퉁이들선교회 캡처



데이비드 플랫 <물러서지 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누리며,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값진 삶일까!

십 년 전 책 '래디컬'을 통해 성공 신화에서 벗어나 진정한 신앙을 되찾도록 도전했던 데이비드 플랫 목사 또한 목회 현장에서 비난과 어려움을 겪었다.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이후 현실은 너무나 달라져 있다. 정치와 인종을 둘러싼 긴장과 갈등, 가족과 교회 안의 분열, 냉랭한 가족들, 서먹한 친구들, 신앙을 떠나는 청년들, 교만, 이기주의, 권력욕의 바이러스가 교회를 감염시키고 있다.

는 다들 줄 알았는데.'라고 말하며 실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분명 다르다.'라고 말한다.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싸우라

연합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부색, 정치적, 신학적 이슈로 분열되어 있다. 저자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미국 교회들이 "성경적인 복음"을 버리고 여러 이유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아메리칸 복음"과 맞바꾸었다는 것이다.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이다. 진정한 복음 안에서 한 몸 된 연합을 이루어 '서로' 다름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싸우는 몸 된 우주적 교회로 서야 한다고 말한다.

책의 마지막 챕터에서 그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기 위한 6가지 실천 방법을 제시한다. 첫 번째, 가족처럼 서로를 돌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며 세상 속에서 함께 제자들을 삼기로 결단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라.

이 6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며 개인의 삶이 온전히 진리로 설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공동체가 하나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제 우리 앞에 선택의 길이 놓여 있다. 이 책의 서두에서 "모든 것을 걸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겠는가?"의 질문 앞에 이제 각자가 서야 할 때이다. 어떠한 대가가 따르든지 물러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셨는데, 제자 된 삶을 사는 것을 힘쓰지 않고 얼마나 쉽게 물러서고 포기하려 했었는가?

정준영 선교사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태국, 대마초 합법화 18개월 만에 불법화 예정... 환자·범죄 급증

태국 정부가 대마초를 합법화한 지 18개월 만에 다시 대마초를 불법화할 예정이라고 데일리메일이 최근 전했다.

대마초가 규제 약물에서 제외된 2022년 6월 이후 대마초로 인한 심리적 문제로 입원한 환자는 연간 6만 3000명으로 2배 증가했으며, 약물로 인한 폭력 및 학대에 대한 보고도 증가했다.

태국은 2022년 6월 9일, 향락 목적이 아닌 의료 목적의 대마초를 아시아 최초로 합법화했다. 당시 범자이타이당(Bhumjaithai Party)은 북부의 대마초 재배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스리타 타비신 태국 총리는 2023년 8월에 당선된 후 대마초가 '큰 문제'라며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태국 공중보건부는 지난 달 9일 향락용 대마초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대마법 초안을 공개했다.

모든 향락용 대마초 불법

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것이 이미 불법이며, 적발 시 700달러(2만 5000บาท)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처: Unsplash의 Alexander Grey

국민의 수는 2022년 3만 7000명에서 2023년 6만 3000명으로 70% 이상 증가했다. 대마초로 인해 범죄율이 증가하고 마약 관련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태국 법안은 내각의 승인과 의회의 표결, 마하 와치탈롱폰 국왕의 서명을 거쳐야 법으로 발효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미 태국의 모든 정당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태국은 2022년 6월 대마초를 규제 약물 목록에서 삭제하는 대신 '규제 약초'로 분류했다. 이로써 현진인들은 면허만 있으면 대마 제품을 재배하고 거래할 수 있다. 이 조

치는 전통적으로 가치가 낮은 고무와 쌀에 의존하는 북부의 가난한 농부들에게 새로운 현금 작물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국적으로 대마초 삼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대마초가 통증 완화 및 불안 치료에 효과가 있으며 중독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THC의 함량이 높아져 뇌에 기분을 좋게 하는 화학물질을 넘치게 하고 중독을 유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후원자 명단

2024. 1. 31 ~ 2. 20 (가나다 순) 개인 권혜령 김동희 김선례 김선희 김수미 김숙자 김신에 도란복 박경희 박신희 신은혜 신혜경 안민자 안수경 오상훈 오세주 유영권 윤군도 윤미경 이상현 이영선 이영옥 이은주 이진희 장근혜 정옥영 정호진 조복형 조형광 존/영희 진미자 최경숙 최근희 최점욱 하은숙 홍고집 홍찬일 황일문 무명 교회 및 단체 감서침례교회 겨져씨선교회 나죽고예수사는교회 대구서현교회교정동 모리아선교회 문광교회 샘물교회 선한목자교회 열매교회 주나임교회 주소망교회 헵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070-5014-0406-8 E-mail: press@gpnews.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명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김강호, 인쇄인: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의료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